

	<h1>참 고 자 료</h1>	작성과	재난구호과
		담당자	과 장 김범석 서기관 최상원
		연락처	044-205-5330 044-205-5337

이마트24 재해구호활동에 동참한다

- 행정안전부·이마트24·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구호 업무협약 체결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보다 신속한 구호활동을 펼치기 위해 이마트24,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7월 10일 재해구호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은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마트24에서 먼저 재난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 정부에서도 재난현장의 구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 아울러, 이마트24에서는 지난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발생 시에도 화장지, 생수 등 구호물품 5,727점을 제공하여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바가 있다.
-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재난현장에 필요한 식료품·생필품 등 구호물품 제공, 이마트24 편의점을 활용한 재난안전정책 홍보 지원, 임직원 봉사단의 피해지역 지원활동 및 헌혈증 제공 등이다.

- 먼저, 이마트24에서는 긴급구호세트(의약품, 생활기초용품)를 제작하여 물류센터에 상시 보관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식료품 및 생필품 등을 이마트24 유통 물류망을 통해 현장으로 직접 배송함으로써 이재민들의 조기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 또한, 이마트24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내 모니터와 음향시설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재난안전정책 관련 홍보자료를 주기적으로 송출하여 안전문화 확산에도 앞장선다.
- 채홍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전국적 물류망과 편의점을 보유한 이마트24와 협력을 통해 보다 신속한 재해구호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라며, “이번 협약이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민·관 협력의 좋은 모델로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추진배경

- 재난현장에 신속히 구호인력·물자를 지원하고 지자체 주도의 이재민 구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민간부문 간 협력체계 구축

〈 재해구호분야 민간업무협약 체결 현황(6개 기업) 〉

◇ BGF리테일('15.1.28.), CJ그룹('15.5.14.), 영원무역('17.1.20.), GS리테일('17.9.27.), 아이두젠('18.2.7.), 롯데그룹 유통사업부문('18.4.25.)

- ‘이마트24’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재해구호 업무협약 제안
 - (지원내용) 재난 발생 시 긴급 구호물자 제공 및 안전정책 홍보 지원 등
 - (3자 협약) 재해 현장에 구호물자의 신속·적절한 지원 등을 위해 구호지원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와 3자 협약 체결

□ 주요내용

- (협약당사자) 이마트24-전국재해구호협회-행정안전부
- (협약기간) 2019. 7. 10. ~ 2020. 7. 9.(1년*)
 - * 협약기간 종료 시점까지 상호간 이의가 없을 경우, 별도 협약체결 없이 1년씩 자동 갱신
- 협약내용(안)

기관명	협 력 사 항	비고
이 마 트 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발생 시 긴급 구호물자 및 구호키트 제공(연간 5천만원 상당), 안전정책 홍보 지원, 임직원 봉사단 운영(피해지역 지원활동 및 헌혈증 제공 등) 	
전 국 재 해 구 호 협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 현장에 필요 물품 지원요청, 지원물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 	
행 정 안 전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구호 민관협력 사업 총괄, 재난 상황 등 협약기관 전달, 지자체-민간협약기업 간 행정지원 등 	

□ 일반현황

회 사 명	(주)이마트24	대 표 자	김 성 영(대표이사)
설립년월	2013.12	주 소	서울 성동구 성수동 281-4 푸조비즈타워 3층
홈페이지	www.emart24.co.kr	사업분야	편의점

□ 주요연혁

2013.12	신세계 (주)위드미FS 인수	2017.08	(주)이마트24 사명변경
2015.12	업계 최단기 1,000호점 오픈	2017.10	편의점 업계 4위 달성
2017.04	업계 최단기 2,000호점 오픈	2018.04	업계 최단기 3,000호점 오픈
2017.06	무인계산대 도입	2018.12	年 매출액 1조원 돌파

□ 주요현황

매출('18년)	1조 44억원
점 포 수 (직영점포)	4,708점

□ 설립 배경 및 목적

- '61년 7월 대규모 수해를 계기로 사회 각계 대표와 함께 “전국수해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구호사업의 일원화 발판을 마련·설립
- 의연금품의 모집과 배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하며, 민간 차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호활동을 위함

< 주요 연혁 >

- 1961년 : 전국수해대책위원회 조직, 전국재해대책위원회 발족
- 1964년 : 보건사회부 사회단체 등록, 전국재해대책협의회로 개칭
- 1968년 : 사단법인으로 개편
- 2001년 :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법정구호기관이 됨
- 2002년 : 전국재해구호협회 개칭

□ 근거 법령 및 주요 역할

- (근거법령) 재해구호법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 * 재해구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 (주요역할) 의연금품 모집·배분(배분위원회 운영), 구호세트의 제작, 재해 구호물자의 관리·공급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기타 재해구호활동 지원

□ 조직 구성

- 총 회 : 회장 1, 부회장 1, 감사 2, 이사 20, 회원단체 24
 - * 송필호 회장(50년생) : 현 중앙일보 부회장/ 임기('17.3.1.~'20.2.28.)
- 이사회 :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방송사·신문사 대표, 민간구호 단체, 변호사, 유관기관 대표 등, 의연금 배분위원회 역할 담당)
- 직 원 : 26명(사무총장, 대외협력실 3명, 경영본부 6명, 구호모금본부 12명, 지역본부 4명 / 파주·함양 물류센터 2개소)